행 복 신 문

제 1호 2006년 9월 1일

치평초등학교 1학년 4반 10번 유 수 빈

♣ 가족 소개 ♣

우리 가족은 아빠와 엄마와 승혁이 그리고 나 유수빈입니다. 우리 아빠는 광주일보에서 근무하시고 엄마는 병원에서 근무하십니다. 내 동생 승혁이는 6살이고 우미 어린이집에 다닌답니다.

지난번 우리 가족이 에버랜드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경복궁도 견학하고 한국 민속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래희망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전 우리 동생이 다니고 있는 우미 어린이집에서 4살되기전 에부터 다녀서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특기는 그네타기,바이킹 타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엄마,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 저의 윗 어른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만화는 짱구의 변장 놀이입니다. 그리고 짱구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고요. 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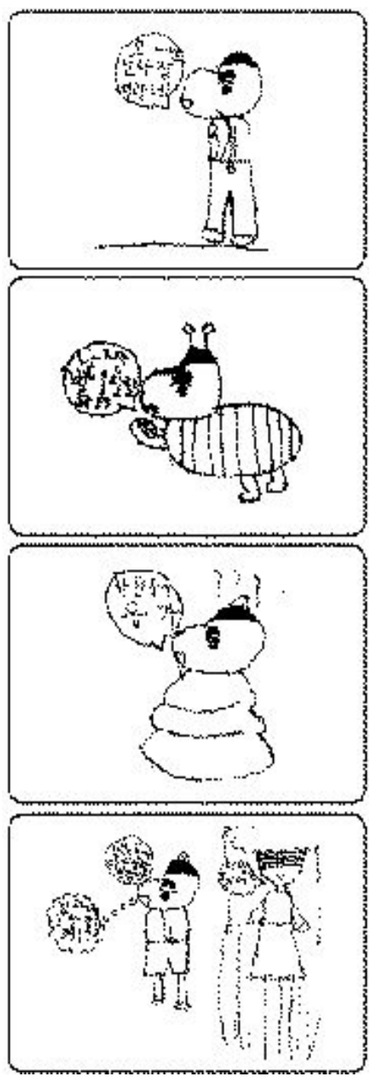
다툼의 뒤는 우정

글:유수빈

오늘은 다툰 날
정말 화가 난다
다시 놀기만 해봐라. 뒤돌아서 굳세게 간다.
하지만 다시 만나면
나 모른 체, 너 모른 체 언제 싸운 지도 모르고
우리들 은 어느새 제일 친한 단짝 친구가 돼버린다.
우리의 우정은 갈라 놀 수 없는 법

짱구의 변장놀이

그림:유수빈



▶아빠의 편지

아들에게서 받은 편지는 작전(?)

내게는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너무나 총명스러운 딸 수빈이, 개구쟁이의 원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아들 승혁이…

우리 수빈 이는 일찍부터 한글도 스스로 깨치고 어려서부터 무척이나 뛰어나 우리 부부에게 첫아이의 행복감을 몇 배 이상 느끼게 해주며 자랐답니다.

수빈이는 여러 면에서 부모에게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어디를 가나 책이 보이면 쪼그리고 앉아 책을 읽고 무엇이든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것들도 그냥 흘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딸을 가진 아빠는 그저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답니다.

우리 승혁이을 보면 마음이 아려 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유문협착증세로 수술을 해서 엄마 아빠의 혼을 쏙 빼 놓더니 커가면 서도 엄마 아빠의 애 간장을 다 녹입니다.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수빈 이와 비교해서 모든 것이 더 답니다. 하지만 수빈이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고집입니다.

승혁이는 태어나서 바로 수술을 해 다른 아이에 비해 조금 작습니다.

얼마전 전대 병원에서 성장클리닉 진료를 마친 후 결과가 잘 나와 우리가족 넷이서 꽤나 비싼 음식점에 들러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승혁이가 워낙 말썽을 부려 전날밤 '젠타포스'인가 하는 로봇을 사준다고 한 약속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엄마는 다시 출근하고 수빈이는 학원에 보낸 후 아들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오는데 그날따라 승혁이가 장난감 사달라는 떼도 쓰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내 뒤만 졸졸 따라 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승혁이는 혼자 무언가를 하기 시작 했습니다. 아직 화가 덜 풀린 난 모른 체 하였지요. 잠시 후 우리 귀여운 악마가 '아빠 편지' 하며 전해 준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쓸 줄 아는 글씨만 써서 보낸 편지… 그냥 "아빠를 너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였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들을 꼭 안아 줄 수밖에 도리가 없었지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마트에 가서 '젠타포스'를 샀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 아들의 작전에 내가 넘어간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사랑스런 아내와 공주같은 우리딸 수빈이 애교가 넘쳐 흐르는 아들 승혁이를 너무도 사랑한답니다.

▶엄마의 편지

사랑하는 우리수빈이와 승혁이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운 우리 딸 , 우리 아들직장 다니는 엄마 덕에 일찍 철이 들어버린 우리 수빈이 할머니 댁 근처에 놀 친구가 없어 4살이 되기도 전에 어린이 집을 다녔지.

어린이 집에 가는 첫날 즐겁게 손가락 V 자를 가리키며 웃는 모습이 엄마 눈엔 지금도 선하다.

우리 수빈이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너무 좋아 했지.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사다 나른 스케치북이 200권도 넘을 거다.

누나를 닮아서 인지 우리 승혁이도 곧잘 그림을 잘 그리는 구나. 유치원 선생님께서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승혁이의 그림솜씨가 또래 아이들보다는 우수하다고 그러는 구나.

엄마는 수빈이가 엄마의 딸이라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단다. 이렇게 똑똑하고 예쁜 아이가 엄마의 딸 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

학교 입학해서 적응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 날 수빈이가 "아직도 걱정하고 있어요? 나는 잘 작응 하고 있어요"하는 말에 엄마는 우리 수빈이가 너무나 대견스러웠단다.

사랑하는 수빈아 엄마는 승혁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태어 난지 한 달 만에 수술을 했단다. 어른들도 고통스러운 수술을 아무 표현도 못하는 우리 아기는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도 또래 아이들보다 작아서 엄마 아빠는 걱정이지만 그래도 다른 곳엔 이상이 없다니 엄마 아빠는 승혁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한단다.

엄마가 직장 때문에 저 많이 놀아주지 못하고 신경써주지 못하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로 더 할 수 없이 크단다.